



한국무역협회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희망의 새 시대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무역 유공자,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계 시장 개척과 무역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35명이 산업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상했고 일정 금액 이상을 수출한 1526개 기업이 수출탑을 받았다. 우리 협회 회원사에서는 세코닉스, 해성옵틱스, 디지털옵틱, 자화전자, 방주광학, 코렌, 서울정광, 엠티엠, 챔프다이어, SMDV 등이 수출탑을 받았다.

또 한 번의 희망의 역사, '제2의 무역입국'을 향한 도전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엔화 약세와 유럽발 금융위기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와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무역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수출이 5597억 2300만 달러로 2012년보다 2.2% 증가한 반면 수입은 5155억 2900만 달러로 0.8% 감소해 441억 9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고 밝혔다. 2013년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총 1조 752억 5200만 달러로,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는 반세기 전 수출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수출입국'을 선언한 이래 경제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차곡차곡 만들면서 쉽게 달려왔다. 이제 수출입국 반세기의 저력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제2의 무역입국’을 향한 도전에 무역인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이뤄낼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를 믿는다”며 “2020년 세계무역 5강 및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세일즈외교와 자유무역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835명 산업훈장·포장과 표창과 수상, 1526개사 수출탑 받아

이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총 835명이었다. 우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SK에너지 박봉균 대표이사, 타타대우상용차 김관규 대표이사, KMW 김덕용 대표이사, 한국공장

기계 류홍목 대표이사, 신흥글로벌 박상복 대표이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이어 현대위아 정명철 대표이사 등 5명이 은탑산업훈장을, 플렉스컴 하경태 대표이사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현대자동차 이병호 부사장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코트라 김병권 전략마케팅본부장 등 10명이 철탑산업훈장을, 한국수입업협회 이영동 명예회장 등 10명이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수출탑을 수상한 업체는 총 1526개사였으며, 이 중 대기업이 89개사, 중견기업이 63개사, 중소기업이 1374개사에 달했다. 올해 최고의 수출탑인 200억 달러 수출탑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받았으며 롯데케미칼이 60억 달러 수출탑을, 현대글로벌비스가 40억 달러 수출탑을, 현대위아가 30억 달러 수출탑을, 현대엔지니어링이 20억 달러 탑을 각각 수상했다.



이어 10억 달러 수출탑은 현대파워텍과 현대코스모주식회사, 대림산업 등 3개사가 차지했다. 현대케피코와 유라코 퍼레이션은 각각 9억 달러 수출탑과 8억 달러 수출탑을 받았고, 7억 달러 수출탑은 동서석유화학과 경신, 희성금속 등 3개사가 수상했다. 6억 달러 수출탑은 파트론과 대덕전자, 스탠츠칩팩코리아 등 3개사에 돌아갔다. 또한 5억 달러 수출탑은 금호피엔비화학 등 6개사가, 4억 달러 수출탑은 에스맥 등 9개사가, 3억 달러 수출탑은 자화전자 등 10개사가, 2억 달러 수출탑은 파워로직스 등 17개사가, 1억 달러 수출탑은 해성옵틱스와 방주광학을 포함한 40개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7000만 달러 수출탑은 36개사, 5000만 달러 수출탑은 42개사, 3000만 달러 수출탑은 92개사, 2000만 달러 수출탑은 104개사, 1000만 달러 수출탑은 176개사, 500만 달러 탑은 293개사가, 300만달러 수출탑은 269개사가 받았으며, 처음으로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해 100만 달러 수출탑을 받은 초보 수출기업은 총 422개사로 집계됐다.

‘수출입국 반세기’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돼

‘수출입국 반세기’를 맞은 올해는 부대행사로 ‘한국무역 50년 특별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부터 시대별 수출 주력상품, 정부기록물, 영상 등을 선보여 지난 50년 한국 무역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전시회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렸으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됐다.

또한 함께 진행된 우수 수출기업 채용박람회에는 우수 수출기업 약 70개사가 참여해 취업 상담을 진행했으며, 국내외 취업 정보도 제공했다. 이밖에 2013 트레이드코리아 온라인 우수상품관, 대학(원)생 무역논문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한편 무역의 날은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제정된 ‘수출의 날’이 시초다. 이후 1987년 수출과 수입을 함께 진흥해 무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무역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2011년에는 사상 첫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12월 5일로 기념일이 변경됐다.

우리 협회 회원사 수상자 및 수상업체

포장 수상자

방주광학 정연훈 대표이사,
도은 신도현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해성옵틱스 송강현 전무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자

챔프다이아 최순주 대표이사,
해성옵틱스 장유식 상무이사,
도은 이기현 차장,
SMDV 김지영 과장

3억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자화전자(김상면)

1억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해성옵틱스(이을성),
방주광학(정연훈)

7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세코닉스(박원희)

50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디지털옵틱(채찬영),
코렌(이종진)

5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엠티엠(김대봉),
서울정광(심문식)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업체

SMDV(김종석),
챔프다이아(최순주)
